Plinius Anniversary

수입원 : 태인기기 (02)971-8241

· **가격** : 760만원 · **실효 출력** : 200W(8Ω), 280W(4Ω) · **주파수 응답** : 20Hz-20kHz(±0.2dB), 5Hz-70kHz(-3dB) · **디스토션** : 0.05% 이하 · **입력 임피던스** : 47kΩ · **게인** : 40dB · **크기(WHD)** : 45×12×40cm · **무게** : 14kg

스피커를 제대로 제어해 모든 소리를 끌어내다

_글 이현모

플리니우스는 뉴질랜드에서 1980년에 창립한 오디오 업체이다. 그동안 뉴질랜드의 오디오가 한국에 알려진 것은 별로 없었다. 사실 뉴질랜드는 농업으로 유명하고 공업 제품은 별로 알려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 뉴질랜드의 플리니우스가 한국에 처음 선보인 제품은 SA250이었는데,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이었지만 하이엔드적인 소리 경향으로 국내의 오디오 애호가에 좋은 인상을 심어 주었다.

이번에 필자가 시청한 플리니우스 애니버서리 인티앰프는 CD 플레이어와 함께 탄생 30주년 기념작으로 나온 세트이다. 애니버서리 인티앰프는 8Ω에서 200W 출력이고, 4Ω에선 280W라는 출력을 낸다. 이 정도면 웬만한 스피커는 거의 구동할 것이라고 본다. 밸런스 입력 1조, 언밸런스 입력 5조가 있고, 스피커 출력도 2조가 있어서 바이와이어링 연결도 가능하다. 또 프리앰프로 사용할 수 있는 프리 아웃 단자도 있다. 외형은 전면 패널의 좌우 측면이 라운드 처리가 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론 견고한 모습이다.

애니버서리 인티앰프를 시청하기 위해, 먼저 최고의 기교파 피아니스트 마르크-앙드레 아믈랭이 연주한 쇼팽의 피아노 소나타 제2번 3악장 장송행진곡(Hyperion)을 들어 보았다. 피아노의 음은 명료하고 풍부한 소리로 들려준다.

정트리오가 연주하는 차이코프스키의 피아노 트리오 '위대한 예술가를 회상하며'(Erato)의 앞부분을 들었다. 첼로의 음색이 사실적이며, 바이올린 또한 애처롭게 울린다. 사실적이지만 거칠지 않고 자연스러운 소리이다.

조수미가 부른 비발디의 '이 세상에 참 평화 없어라 RV630' 중에 나오는 '라르게토'(Warner Classics)에서 조수미의 목소리는 맑고 명료하지만 부드럽다. 반주로 시작하는 저음 현악기 소리 역시 선명하면서도 자연스럽다.

첼리비다케가 지휘하는 베토벤의 합창 교향곡(EMI) 제4악장 합창 부분에서는 오케스트라의 악기 소리가 명료하며, 각 솔로 가수들의 목소리는 역시 맑고 명료하다. 좌우로 크게 펼쳐지는 합창대와 무대 가운데서 두드려대는 팀파니와 북의 소리 또한 선명하면서도 자연스럽다.

플리니우스의 30주년 애니버서리 인티앰프를 몇 가지 음반으로 들어 보니, 전체적으로 힘이 뒷받침되지만 단정하고 맑고 명료한 소리를 추구한 앰프라는 생각이 든다. 사실 앰프는 소스기기로부터 온 음악 신호를 순수하게 증폭해 내기만 하면 그 역할을 다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음의 왜곡이나 가감이 생기기 쉬운데, 애니버서리 인티앰프는 그런 면을 가급적 배제한 하이엔드 오디오 기기 중의 하나라고 본다. 스피커의 진동판을 제대로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앰프는 스피커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다. 애니버서리 인티앰프는 그런 앰프에 한 걸음 더 다가선 앰프 중의 하나이다. A